

< KT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 이석채 회장 연임반대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 >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KT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

-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KT사옥앞

<프로그램>

- 사회 : 김하늬 (희망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발언 : 허영구 (KT공대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발언 :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변호사)
- 발언 :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
- 발언 :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문 (통합진보당 조직실장)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소속 40개 단체(민주노총, 전농, 전여농, 전빈련, 빈민해방실천연대, 한국청년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 전국학생행진,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범민련, 다함께, 전국노동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인권회관, 사월혁명회, 추모연대, 전태일재단, 전태일노동대학, 민주노동자전국회의, 현장실천연대, 민자통, 진보사랑, 21C코리아연구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빈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불교평화연대, 서울연대, 부천민중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공운수노조/공공운수연맹,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서울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노동권팀, 민주노동자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투기자본감시센터, 문화연대, KT새노동조합, KT노동인권센터, KT민주동지회,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국제민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ktis지부, ktcs지부)

<기자회견문>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kt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다!”

지난 3년 우리 사회의 kt 관련 화두는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통신공공성 회복과 kt의 노동인권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kt 이석채 회장의 올레경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엄청난 통화요금을 인하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앞장서서 반대해 온 것, 그리고 재임 기간에 무려 5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치도 거부하는 것이 이석채 회장의 올레경영입니다.

그의 경영은 오로지 주주와 정권 그리고 자신과 같은 경영진의 배를 불리기 위해 전체 소비자와 노동자의 이익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며,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되는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키는 기업 경영’의 전형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석채씨가 kt 회장에 연임되는 것은 복지 사회라는 시대적 소명에 역행하는 처사로 규정하며,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kt의 해외주주 배불리기 경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2009년에 무려 94.2%의 배당 성향을 보이는 등, 꾸준히 비판되어 온 kt의 과다 배당 문제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어떻게든 장부상의 수익금을 만들어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에 골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석채 식 경영이 계속된다면 kt의 지속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둘째, 2011년 16명, 올해만 벌써 5명의 kt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살생부를 작성해 지속·반복적인 탄압으로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프로그램, 이로 인한 고강도 스트레스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왔음이 여러 차례 폭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적 압박을 받는 kt 노동자들은 고객 정보 조회 등 불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정액제 무단 가입 파동에서 최근 2G 서비스 강제 종료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불법 행태에 이르기까지 kt의 인권탄압적 기업 문화는 사회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노동인권과 고객의 정보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온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셋째, kt를 낙하산 천국으로 만든 MB정권 코드경영, 이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부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에 투자하는 해외주주들은 고배당 챙기기의 유일한 리스크인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권 실세와 가까운 낙하산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주들은 빗발치는 요금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고배당을 무리 없이 관철할 수 있어 좋고, 정치권은 코드경영 할 수 있어 좋고, 경영진은 고연봉 챙겨 좋은, 1%를 위한 동맹의 집행자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더 이상 kt가 1%를 위해 99%를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최소한 kt 회장은 주주가치 일변도에서 탈피해 소비자-노동자-주주 등 이해당사자의 균형자 역할을 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kt가 1%가 아닌 99%의 사랑을 받는 통신회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막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오는 25일(토) 오후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KT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 이석채 회장 연임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인시위, 국회의원 연임반대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단체 각계의 연임 반대 공동행동을 KT주주총회가 개최되는 3월 16일까지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kt 주주총회 당일에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국민의 통신기업으로 KT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KT주주총회 참가단”을 조직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KT 이석채 회장은 연임의 욕심을 버리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KT를 죽음의 기업으로 만들고 국민의 통신비로 해외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1%를 위한 경영을 계속 하려한다면 KT공대위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석채 회장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죽음의 기업 KT·계열사 노동인권 보장과 통신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우리는 왜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가?

1. kt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단기 주주이익 극대화 경영

kt의 해외주주 위주의 배불리기 경영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동안 꾸준히 비판되어 온 kt의 과다 배당문제는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오히려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에는 배당성향이 무려 94.2%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는 곧 기업이 번 돈의 94%를 배당금으로 지급했음을 의미합니다.

2011년의 경우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장기전략 보다는 단기적인 일회성 이슈인 아이폰 출시 혹은 KTF와의 합병과 BC카드 인수, 금호렌터카 인수와 같은 비통신분야로의 확대 등에 의존하던 이석채 회장의 올레경영이 2011년 4분기 2G 종료 과정에서의 비용발생과 LTE 지연에 따른 가입자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도 kt 이사회는 주당 2000원의 고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은 해야겠고, 돈은 안 벌리고, 투자할 곳은 늘어만 가자 등장한 것이 대대적인 부동산 매각이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kt가 부동산 처분으로 얻은 장부상 수익금만 2,958억원이었습니다. 공기업 시절 국민의 성원으로 확보한 보유 부동산마저 매각하면서 단기적인 주주 이익 극대화에 매몰된 이석채 회장의 올레경영이 계속된다면 kt의 지속성은 크게 위협받는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KT 부동산 매각 현황>

지사	매각가 (원)	위치
홍산지사	1018억	서울 홍산구 한강로2가 44-3
신촌지사	354억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7-1
강릉지사	520억	서울 강릉구 갈매동 415-9
공릉지사	288억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5-4
노량진지사	584억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56-1
홍제지사	91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87-255, 278-70
중랑지점	181억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0-68
가좌지사	178억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3-1
청량리지사	204억	서울 중대문구 청량리동 368, 392-1
공항지사	165억	서울 강서구 공항동 11-10, 11-2
해운대지점	355억	부산 해운대구 우동 548
청룡지사	20억	부산 금정구 청룡동 57-16, 57-24, 80-7
영도지사	44억	부산 영도구 남항동1가 49
수성지사	78억	대구 수성구 상동 8-1
울산지사	96억	울산 중구 성남동 219-77, 219-183
마산 내서지사	41억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중리 1043-1
진주지사	43억	경남 진주시 계동 38
소사지사	122억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0-16
단대지사	265억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동안동전화국	46억	경북 안동시 흥상동 1093
누계	4708억	토지 9만1288㎡ , 건물 19만1271㎡

2. 노동자와 고객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경영

2011년 kt 노동자들 16명이 운명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죽음에 대해 kt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직원들의 평균연령이 높은데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로 전문기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kt노동자의 죽음을 분석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kt노동자의 사망 원인에서 순환계질환이 압도적으로 높는데, 이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kt 노동자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은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와 고용불안 때문인데, kt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용불안이 단순한 심리적 압박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퇴출노동자 명단, 이른바 살생부를 작성하여 지속·반복적인 노동탄압을 통해 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조직적 프로그램으로 존재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 관리자의 양심 선언 등을 통해 불법퇴출프로그램, 이른바 CP프로그램이 폭로되었고 2005년경에 본사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어 kt는 물론 계열사들에 대해서까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kt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죽음의 기업문화는 또 다른 정보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고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kt는 공기업 시절부터 엄청난 양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 이후 부쩍 강화된 실적 압박과 실적이 부진할 경우 CP로 몰려서 겪어야 할 고초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kt노동자들이 실적을 위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조회 등 불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멀게는 정액제 무단 가입 파동부터 가까이로는 최근 불거진 2G 종료 과정에서의 불법 행태에 이르기까지 kt의 인권탄압적 기업문화의 폐해는 이미 사회적 확산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노동인권에 대한 철저한 외면으로 일관한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3. 낙하산 천국 - 정권 코드 경영

kt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낙하산 인사입니다. 첫째는 그 규모이고 둘째는 그 원인입니다. 도대체 정부지분이 0% 인 완전 민영화된 회사에 '어떻게 그리 많은 낙하산 인사들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왜 주주들이 그걸 수용하느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김은혜 전무, 이춘호 사외이사와 같이 직접 정치권에 몸담고 있다가 kt로 온 정치권 낙하산 규모도 엄청난데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정치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나름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낙하산에 가까운 오세현 전무(오세훈 전 서울시장 동생)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을 지낸

송정희 SI부문 부사장 등 스펙 있는 낙하산 인사들을 포함시키면 그 규모는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낙하산 인사를 주주들의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지하다시피 통신산업은 대표적인 정부 규제산업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주들 입장에서는 고배당 쟁기기의 유일한 리스크인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권 실세와 가까운 낙하산 인사들을 경영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해외투자자들은 사회적으로 빗발치는 요금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권정부적인 낙하산인사들로 인해 고배당을 무리 없이 관철할 수 있어 좋고, 정권은 자신들의 사람 심어 코드경영할 수 있어 좋고,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낙하산 경영진을 매개로 한 정권-해외투자자 동맹입니다.

해외투자자들은 고배당 쟁겨 좋고, 경영진은 고연봉 쟁겨 좋고, 정권은 코드경영으로 쟁겨 좋은 이 1%를 위한 동맹의 집행자 이석채 회장의 연임을 반대합니다.

KT 내 MB정부 주요 낙하산 인사 현황

이름	직책	경력
이석채	회장	국민경제자문위원(전 정보통신부 장관)
석호익	전 부회장(총선 출마 예정)	18대 총선 고령·성주·칠곡 한나라당 후보
김은혜	그룹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략실장(전무)	청와대 대변인
이춘호	사외이사(교육방송 이사장)	MB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
허중수	전 사외이사(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대통령직인수위 기후변화TFT팀장
박병원	사외이사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서종렬	전 미디어본부장(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김규성	KT 엠하우스 사장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팀장
이태규	전 KT경제경영연구소 전무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윤종화	KT캐피탈 감사(4개 종편투자)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

<첨부자료2>

KT·계열사 인력 퇴출과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

○ KT는 2003년 10월 5,505명, 2009년 5,992명에 대한 특별 명예퇴직 등 민영화 10년 동안 기존 고용규모의 절반 가량인 3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시켜 왔음. 이 과정에서 업무 전환배치, 원거리 발령, 관리자 면담을 통한 퇴직 압박 등이 강도높게 이루어져 왔음.

○ 2011년 4월 KT 관리자였던 반기룡 씨의 양심선언으로 이른바 “C-Player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짐. 퇴출 규모와 대상을 정해 놓고 집요하게 괴롭힘으로써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이 과정에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여성 노동자(기존 114 업무)에게 전봇대에 올라야 하는 현장가설업무를 시키는 등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하거나, 전국 곳곳을 ‘뽕뽕이’ 돌리듯 원거리 발령을 내고,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켜 수치심을 주는 등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이 밝혀짐.

○ 이로 인해 수많은 KT 노동자들이 퇴출 압박을 받는 과정에서 업무 부적응, 과도한 스트레스, 모욕감과 수치심 등으로 인해 괴로워해 왔음. 끝까지 퇴출압박을 견디다가 회사의 탄압으로 두번 썩이나 산재 판정을 받고 요양한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 퇴출을 피했다 해도 인력이 감축된 상황에서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다 과로사, 돌연사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함. 2009년 특별명퇴 이후 1년 8개월 동안 21명의 노동자가 사망함.

○ 계열사인 KTIS, KTCS에서 VOC업무를 해 오다가 최근 퇴직을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2008년 강요된 명예퇴직으로 임금 70%만을 받고 계열사에서 일해 왔음. 그런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으며, 사직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KT본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거리 부당발령, 모욕감을 주는 교육프로그램 투입, 생소한 콜센터 업무로 전환배치, 임금 50% 삭감 등을 단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희망연대노조 KTCS지부 전해남 지부장이 차량 안에서 분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함. 전해남 지부장 사망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이석채 회장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

○ KT는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으며, 실제로 2010년 1조원이 넘는 순이익 중 약 5,800억원을 배당했고 이 중 3천억 이상이 외국자본에게 돌아감. 이외에도 ‘공수부대’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노골적인 MB정권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 4대 종편에 대규모 투자,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KT에 대해 성역없이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KT콜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MB정권과 KT경영진의 유착관계가 심함.

KT특별명퇴(2009.12.31.자 5,992명) 후 KT 사망자 현황

2010.3~2011.11(1년8개월간)

이름	소 속	사망일자	사망 원인	비 고
김00	강남네트워크운용 남부집중운용센터	2010.3.1	돌연사 (심장마비)	
이00	서울북부마케팅단 아현지사	2010.5.29	뇌출혈	근무 중 쓰러짐(8명에서 4명으로 감축 상태) *산재소송중
양00	전남마케팅단 동목포지사	2010.6.3	심근경색	순직처리 함
조00	서울북부마케팅단 여의도지사	2010.6.25	백혈병	
나00	수도권무선네트워크운용단 강서시설팀	2010.6.27	돌연사 (관상동맥경화)	산재소송 중
탁00	서울북부마케팅단 중랑지사	2010.7.8	뇌부종	VOC 담당에서 영업팀으로 전환배치
최00	강원마케팅단 춘천지사	2010.9.3	자살 (우울증)	체납에서 영업으로 전환배치 *최근 유족(부인)도 자살 사망
최00	부산마케팅단 구포지사	2010.9.19	심근경색	NSC에서 ITE로 전환배치 *산재소송 중
황00	경북마케팅단 울진지사	2011.1.1	돌연사 (심장마비)	
정00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2011.1.14	업무중 교통사고	순직처리 함
김00	전남마케팅단 여수지사	2011.3.28	자살	무급휴일근무(아파트고객영업) *산재신청 계류중
김00	경기남부마케팅단 오산지사	2011.4.14	돌연사 (심장마비)	
노00	인천마케팅단 주안지사	2011.6.16	자살	농약마시고 음독자살
유00	충남법인사업단 천안법인지사	2011.7.3	돌연사	동호회(올레 음식모)초청공연 후 새벽 사망(심근경색 추정)
이00	서울남부법인사업단 파천법인지사	2011.7.11	돌연사	퇴근길 남부순환로 갓길 차량 안에서 사망 (심장마비 추정)
강00	서울북부마케팅단 은평지사	2011.7.16	자살	NSC에서 지사로 전환배치 후 부적응. 은평지사 옥상에서 투신
주00	경기북부마케팅단 의정부지사	2011.7.30	돌연사	새벽2시경 수면 중 사망(심장마비 추정)
김00	경기남부법인사업단 신갈법인지사	2011.8.14	급성간암	2011년 1월초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전환 배치 후 2월에 발병
이00	개인고객부문	2011.8.29	익사	
전00	KTCS(계열사) VOC업무	2011.10.3	분신자살	KT의 VOC업무회수로 인한 강제사직 강요, 거부하자 콜센터 신규상담원으로 강제발령, 임금 절반이하 삭감 통보
윤00	강남NSC 남수원운용팀	2011.10.5	심장마비	
전00	논산NSC 운용팀	2011.10.6.	심근경색	업무 중 연락두절 후 8시간 만에 작업 현장 에서 숨진 채 발견
김00	안동NSC 운용팀	2011.11.19.	심장마비	잠자던 중 사망 (KBS보도)